

전세사기 피해, 감소 추세 속 광주·전남은 ‘상승’

전국 임차권 등기 신청 2024년 정점 이후 감소세 전환
광주, 3년 간 1674건 증가…전남도 1년 새 32% 늘어
지방 주택 유형 반영한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등 시급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을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신청된 전국 부동산 건수는 2만8044건으

로 집계됐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설정하는 안전장치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020년 9294건, 2021년 7631건에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2022년 1만2038건

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4만5445건, 2024년에는 4만353건까지 급증했다. 이후 지난해 2만8044건으로 40.8% 감소하며 전체적으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어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감소세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피해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광주는 2022년 145건에서 2023년 576건으로 약 3배 증가한 데 이어 2024년 1084건, 지난해에는 1819건을 기록하며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전남은 2024년 947건에서 지난해 1252건으로 1년 새 약 32% 늘어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피해 증가 속도에 비해 공공 차원의 구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문제 주택을 매입한 건수는 전남이 1171건으로 전국 여섯 번째, 광주는 567건으로 아홉 번째에 그쳤다. 지역 내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주택 매입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느슨한 소규모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이 밀집된 주거 환경이 꼽힌다.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시세 정보가 불투명하고 감정이 산정이 낮아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우며,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 보증보험 미가입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며 피해자 구제에 나섰지만, 까다로운 인정 요건으로 인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도 적지 않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보는 물론, 다수 임차인 피해 여부와 임대인의 고의성까지 요구하고 있어 이를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긴급복지지원 등 제한적인

지원만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확산되고 있음에도 제도는 여전히 대규모·집단 피해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한다.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칼을 뽑아 들긴 했지만 인정 요건부터 까다로워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당수 임차인들이 주거 불안과 채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특히 전남에는 피해지원센터도 만들 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지방의 주택 유형과 거래 현실을 반영한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와 선제적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 aT, 전통시장·유통업체 조사

4인 가족 설 차례상 비용 ‘평균 20만3000원’

전통시장 18만원 전년 비 1.6% ↓…유통업체는 더 비싸

올해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인 가족 차례상 차림비용에는 얼마나 들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전국 전통시장 및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설 결과, 평균 20만2691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23개 지역의 17개

전통시장과 36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했으며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차림에 필요한 24개 품목을 조사했다.

업체별로는 전통시장 비용이 18만5313원으로 전년 대비 1.6% 하락한 반면, 대형유통업체는 22만7876원으로 4.3% 상승했다.

전체 24개 품목 중 시금치·애호박·한

우 등 14개 품목은 전통시장이 더 저렴해 총비용 기준으로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18.7% 낮았다.

품목별로는 채소류와 과일류 등 농산물이 전년 대비 각각 5.5%, 15.4%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지난해 강세를 보이던 축산물 가격도 자조금 연계 할인 지원 등이 진행되며 하향 조정되고 있어 설이 가까워질수록 차례상 비용 부담은 추가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할인·환급 행사도 이어진다.

농산물·축산물·임산물 등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16일까지 최대 40% 할인되고 수산물은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통해 22일까지 최대 50% 할인 구매 가능하다.

전통시장에서는 10~14일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을 은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aT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줄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알뜰 구매 정보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

“설 차례상 이마트서 저렴하게 준비”

최대 30% 할인 행사

이마트가 설을 앞두고 명절 음식들을 쉽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간편 제수음식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마트는 오는 17일까지 피코크의 제수용 간편식을 10~3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설날 많이 찾는 육수, 떡국 떡과 같은 떡국 재료부터, 전류, 튀김 등 제사 음식과 식혜 등 전통 후식까지 약 50

가지로 다양하다. 제수용 간편식은 음식 준비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편의성에도 개별 재료를 구매할 때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성까지 갖춰 명절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오색전, 동태전, 완자전, 갯알전, 녹두전 등으로 구성된 즉석조리 ‘알천모듬전(백)’을 준비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제수 음식, 비빔밥에 모두 많이 활용하는 고사리, 도라지, 무나물, 시금치, 숙주나물, 콩나물을 ‘명절 6종 나물(360g)’로 구성해 판매한다. 윤희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이동통신 3사, 네트워크 집중 관리 돌입

설 명절 대비…24시간 운영 특별 상황실 설치

이동통신 3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연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9일 이동통신 통화량 및 데이터 트래픽 급증 등에 대비해 설 연휴기간 24시간 운영하는 특별 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KT는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공항과 KTX 역사, 고속도로 인근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집중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SKT 역시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통신 서비스를 모니터링한다.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영상통화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SKT는 별도 신청 없이 기간 중 자동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LG U+는 명절 연휴 기간 통화량과 데이터 사용 증가에 대비해 서울 마곡사옥에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달콤한 디저트로 마음을 전해요” (주)광주신세계가 본관 지하 1층 행사장에서 ‘OUR SWEET MOMENT’를 테마로 15일까지 팝업을 열고 달콤한 디저트를 선보인다. 특히 지역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수제 디저트부터 감각적인 패키지 디자인으로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디저트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다.

곡성군 온라인 종합 쇼핑몰 “곡성몰”

꼼꼼한 생산자 & 알뜰한 소비자의 만남

“우리는 곡성몰입니다.”

곡성몰 검색 <https://gokseongmall.com>

곡성몰에서 신선한 농특산물 구매하세요

매달 진행하는 이벤트로 다양한 혜택 받아보세요.